

특 집 |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내가 꿈꾸는 도서관

2007년 3월 주말. 우리 집은 주말 아침이 제일 분주하다. 주 5일 근무 제도가 정착되어 맞벌이인 우리 부부는 둘 다 쉬며, 아이도 토요일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 온전히 가족만의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두말 할 것 없이 우리식구는 도서관 행이다.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김밥과 튀김을 담은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하다.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하면서 컴퓨터로 이번 주 도서관에서 마련되는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새로 들어온 책 목록과 저자들과의 만남의 시간 등 많은 것을 챙기고 있다. 아이는 오전에는 우리와 함께 공연을 즐기다 오후에는 논술 숙제를 하러 가야 한다며 역사와 관련된 거라면 모두 망라하고 있는 서대문 도서관 가는 길을 확인하고 있다.

참 이렇게 주말이 알뜰해진 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초기에는 무조건 어디론가 멀리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나도 여행만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쉬고만 싶어졌다. 이게 아니다 싶어 공연장을 찾았다. 그러나 좋은 공연일 수록 너무나 비싼 입장료를 내야해서 자주 보기에는 엄두가 나질 않았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얼마 전부터 도서관을 찾으며 우리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주말을 보내게 된 것이다.

* KBS 선임 아나운서, jysann21@hanmail.net



정용살*

우리 동네의 가장 큰 공원 옆에 위치한 도서관. 도서관을 들어서는 마당에는 유아들이 놀 만한 그네와 벤치가 놓여있어 엄마와 아이들은 대부분 이 공간을 좋아한다. 나도 아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책도 보고, 놀기도 하며,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느긋한 오후를 보내기도 했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며 세월을 실감한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커피향이 좋다. 도서관 자원 봉사 영희 엄마가 1년 넘게 여기서 차를 팔고 있다. 1층 자유열람실에는 책을 보면서 차를 놓고 마실 수 있는 공간과 클래식이나 경음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시설이 자리마다 마련되어 있어 나는 저녁 무렵 피로를 풀 겸 편한 옷차림으로 여기를 찾곤 했었다. 냇을 놓고 이 생각저 생각 하는 나에게 남편과 아들, 두 사람이 한 마디씩 던진다. “아니 도서관만 오면 정신을 못 차려... 쫓쫓...” “엄마, 빨리 내려가야지. 영상실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을 봐야지.”

‘아~ 맞아.’ 그랬다. 오늘은 내가 그동안 버르고 버르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전막 공연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날이다. 도서관에 비치된 좋은 공연 DVD들은 주말이면 이렇게 영상실에서 HD돌비 시스템으로 방영된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말이다. 이처럼 좋은 시설의 영상실은 우리지역 ‘도서관 친구들’의 기금으로 처음 만들어진 곳이다. 평소 ‘도서관 친구들’에 참여하는 우리 부부로선 이 곳은 참으로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곳이다.

어느 덧 공연은 시작되었고, 몇 년 전 보았던 그 때의 감동이 다시 나를 엄습해 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과 노트르담 곱추, 콰지모도의 가슴 아린 사랑이야기가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왔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자연스럽게 열람실로 발을 옮겼다. 노트르담의 곱추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다시 읽고 싶어서다. 오늘 저녁에는 이 책을 읽으며 음악을 다시 들어보려 한다. 뮤지컬의 대사가 가지는 그 심오한 의미를 곱씹어 보고 싶다. 그동안 가슴 안에 침잠해있던 ‘사랑’이란 단어를 조용히 꺼내어 보고 싶다.

- 2007년 봄 일기 중에서.

나는 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설렌다. 아니 책을 만나러 갈 때도 설렌다. 거창한 분석과 평가를 할 줄은 모르지만, 내 식으로 글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글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다. 내 나이 서른. 뒤늦은 나이에 나는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졌다. 대학과 취직, 결혼과 육아라는 각박한 현실을 거치면서 나의 감성은 메마른 땅처럼 짝짝 갈라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방송이라는 업무로 다시 만나게 된 책. 책은 그동안 내 눈엔 보이지 않던 자연을 하나 둘씩 보이게 만들더니, 나를 새로운 행복으로 안내했다. 말뚝 굴러가는 소리에도 웃는다는 십대처럼 작은 햇살 하나에도 간지러워지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에도 눈물이 주루룩 흐르고, 석양을 보고 앉아 있노라면 시간가는 걸 모르게 되었다.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한 행복했다. 이 넘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무언가를 끄적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지 10년여. 혼자 하기엔 너무 아까워 나의 아이, 더 나아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허전한 것이 있었다. 바로 책이 모여 있는 공간, 도서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이 곳이 나의 책에 대한 꿈을 완성해 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여성들, 아니 우리 가족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을 깨고, 사랑을 나누도록... 물질의 숲에서 정신의 숲으로, 경쟁의 숲에서 화합의 숲으로, 도서관이 우리 모두를 데려다 주길 조용히 기대해 본다. 행복을 정문에 걸어놓고 도서관 문을 활짝 연다면, 2007년 나의 일기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 같다. 나는 그 날이 오리라 믿고 있다. (주)